

○專門委員

金 南 中

○出席公務員

環境管理室

室 長	金 承 珪
環境企劃課長	鞠 允 鎬
大氣保全課長	張 興 淑
水質保全課長	李 永 成
廢棄物管理課長	金 忠 民
廢棄物施設課長	李 東 塢
公園綠地課長	吳 海 泳
造 景 課 長	崔 光 彬
公園綠地管理事業所長	崔 容 豪
蘭芝島管理事業所長	梁 海 滿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宋 基 文

1999會計年度 環境管理室 所管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基金決算  
檢 討 報 告 書

1. 일반회계

가. 세입부문

'99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액 534억 60백만원에 징수결정액 574억 18백만원으로 세입예산대비 7.4% 증액된 것이고, 실제수납액은 553억 2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95백만원임.

미수납액은 '98년도 0.7%(4억 8백만원)에서 3.6%(20억 95백만원)로 크게 증가한 것은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미수납액 증가사유는

-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18억 1백만원
- 서울대공원 사용료 1억 69백만원으로 공원의 사용료(위탁사용료 징수액)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미지식물원의 경우 사용료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고 하겠음.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차량 정비사업소 미수납액은 서대문구 562만원을 비롯하여 7개 구청과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및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미납한 총액(2000년 이후 완납)이 5,878만원으로 세입징수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유재산 임대수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시유지 임대료에서

2,15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도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음.

특히, 세입부문에서 여미지식물원 수입이 '98년도에 64억 58백만원에서 70억 76백만원으로 약간 증가되었으나,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어 공원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어 어린이, 여미지, 서울대공원을 포괄하는 공원관리시스템의 공사화, 민간매각 등 다각도로 새로운 접근방법이 연구되어져야 하겠음.

나. 세출부문

○'99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의 변동사항은

-예산액	3,144억	5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303억	45백만원
-예비비	3억	98백만원
-전용	12억	60백만원
으로		
예산현액은	3,451억	98백만원
임.		

○ 예산지출액은

-지출액은	2,635억	70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561억	65백만원
-불용액	254억	62백만원
임.		

예산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은 '98년도 대비는

구 분	'98	'99
예산지출액	3,925억8백만원	2,635억70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303억45백만원	561억65백만원
불 용 액	259억19백만원	254억62백만원

즉, 지출액이 '98년도 87.5%에 비해 76.3%로 크게 감소되어 '99년도 환경관리실의 업무추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사업의 일부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등 이는 실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인사의 신중함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불용액은 254억 62백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5.8%에 비해 7.3%로 약간 증가하

였으며 불용액 세부사항을 분석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3%, 사업계획 변경취소 14.6%로 전체 발생의 37.6%로 사업계획 타당성 미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62.4%에 해당되어 이는 현행 예산체계 내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보이나 예산집행잔액이 58.5%에 이르고 있어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산확보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겠음.

○ 전용부문은 직원이계지원비 소요예산 전용 2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건, 공원녹지사업소 공익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 1건, 난지도생태골프장 용역비 1건 등 총 8건이며 이 중 난지도매립지 내 설치될 예정인 생태골프장 조성 용역비 2억 10백만원을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서 공원녹지관리로 전용한 것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생각함.

○ 다음년도 사고 이월액은 529억 7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34%가 발생하여 '98년도(6.8%)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어 '99년도에 상당수의 사업이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여주며, 그 세부내역은

- ISO인증사업, 수치지도작성 84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 20억 60백만원
- 화장실 사업 4억 32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119억 31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5억 72백만원
-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105억 56백만원
- 공원녹지 및 조경관리사업 등 294억 61백만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마포자원회수시설 7억 88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관련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송파자원회수시설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4억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음.

또한, 채무부담행위로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의 예산부족으로 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8억원에서 152억 43백만원은 지출되고, 105억 56백만원은 사고이월된

바 있어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의문이 듦.

○ 국고보조사업은 '99년도에 국고보조액 118억 69백만원과 시비부담 422억 68백만원을 합한 541억 37백만원으로 '98년도 475억 30백만에 비해 13.9%가 증가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순수 국고보조는 '99년도(118억 69백만원)에는 '98년도(171억 57백만원)에 비해 30.9%가 감액되어 환경관리실의 국고확보노력이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의 국고지원을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봉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총 129억 64백만원(국고 16억 41백만원, 시비 41억 50백만원, 구비 71억 7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도봉·강북·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재활용 처리시설로 국고 30%인 38억 89백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2.6%에 불과하여 이 부분도 지적되어야 하며, 서울시의 부채 대부분이 지하철공사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이 1기 지하철은 전혀 없고, 2·3기는 일부 있었던 것에 기인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국고금의 확보는 긴요한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지난해 결산시 지적되었던 도시환경립 조성사업은 33%인 4억 70백만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98년도 4%(1억 24백만원)에 비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실제 수령액은 33백만원에 불과한 2.1% 확보에 그쳐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고자 함.

2.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6건으로 가계지원비 부족분 지출 4건,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참가로 3억 70백원이 지출되었으나 하남시가 주최한 행사에 서울시가 참여한 것도 격에 맞지 않고, 하남시에서 이미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예산을 지원 받았고, 이 행사가 이후 많은 문제점 지적으로 행사 전후로 잡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비비 지출이 적정치 못하였다고 판단됨.

3. 기 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8년 8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 서울시

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6억 85백만원, 수납액 36억 39백만원, 지출액 21억 21백만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2억 3백만원임.

2000年度 一般會計  
環境管理室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1. 세입예산

세외수입 중 자원회수시설운영 기정예산은 87억 45백만원 이었으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성능검사로 가동이 연기됨에 따라 21억 90백만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안은 65억 54백만원으로 감소되었음.

2. 세출예산

○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국고 보조금 39억 60백만원, 시비 79억 20백만원 등 총 118억 80백만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유버스 대비 가격상승 부분인 1대당 31백만원에 대한 무상보조 1,650만원을 제외한 1,450만원을 용자지원하기 위하여 69억 60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음.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하여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인수·합병지원 230억원, 시내버스 차고지매입 50억원,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130억원 등 총 310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 기이 책정되어 있는바, 환경관리실의 CNG 버스도입사업은 시내버스 고급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경유버스의 대기오염 기준치가 지나치게 느슨하여 버스업체의 노후차량 개선의지가 없어 구조적인 문제가 고착되어 있음.

시민의 환경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철저한 대기오염 단속과 중앙정부에 강력한 오염기준치 개정건의 등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이런 토대 위에서 용자에 따른 예산 금액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보조금과 용자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이송되어 있으나 아직 상정되지 못한 상황인 것도 생각하여야 하겠음.

○ 화장실 향상사업은 기정예산 5백만원(홈페이지 개설운영)에서 홍보물 제작 30백만원, 화장실 안내표지판 73백만원, 화장실 유도사인 제작 50백만원, 우수화장실 동판제작 30백만원, 홈페이지 개설 사업증액 30백만원, 화장실 개방에 따른 원가조사용역 30백만원 등 총 2억 43백만원이 신규증액 되어 추경예산은 2억 48백만원임.

화장실문화의 향상은 주요한 사업이나 홍보물제작, 안내표지판, 유도사인, 동판제작 등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 7억 98백만원(22.8%), 인천 17억 57백만원(50.2%), 경기도 9억 45백만원(27.0%)으로 분담하게 되어 이번 추경편성에 반영된 것이며, 향후 2001년 이후에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토록 한다는데 합의가 된 바 있으나 우리시가 매년 한강쓰레기 수거작업에 27억 86백만원과 경기도 구리, 남양주, 용인 등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인천·경기도도 서울시의 한강부유 쓰레기 제거비용의 적절한 분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7억 98백만원 분담은 재고되어야 하겠음.

○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120억원 중 국고분담비율이 없는 점은 고려되어야 하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 추가공사비 3억 70백만원도 검증되어야 함.

○ 안산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비는 기정예산 43억원에서 60억원을 증액하여 103억원이 된 것으로 그 내용은 서대문구 안산지역 62만 5천평 중 주택조합 부지와(주)한양소유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반영된 것이나, 이 지역은 1977년에 공원 결정되었고, 1994년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서고 제268호)을